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에 대한 연구

「이키(いき), 츠(つう), 와비(わび)、사비(さび)를 중심으로」

사사키 치까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The Study of Japanese Traditional Beauty Elements on a Japanese Modern Fashion

「Focusing on the Iki(いき), Tsu(つう), Wabi(わび)、Sabi(さび)」

Sasaki Chika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Woosong University
(2006. 5. 26 토고)

ABSTRACT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how the japanese fashion effects on the japanese fashion's current. This study was processed by the 'wabi', 'sabi', 'tsu' and 'iki' which were the foundation and core of the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japanese style to help the recognizing of traditional design which needed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onal periods.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is presente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 (a) japanese culture, (b) japanese beauty, (c) japanese style, (d) japanese fashion designer.

Conclusively, Japan completed unique design of world by on the basis of own tradition and beauty of japan which were revealed on the their common daily life. So, To help the recognizing of traditional design which needed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onal periods, fashion designer of the world must research the meaning of the trend and motive power of the world fashion, base 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ir country. And for this, the grounding educational curriculums for fashion designer include the process which can promote awareness of their country's culture, tradition, and beauty.

Key words: Japanese fashion(일본 패션), Japanese culture(일본 문화), Japanese style(일본 풍),
Japanese fashion designer(일본 패션 디자이너)

I.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 패션계에서 일본은 비교적 자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체성의 보전과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일본에서 패션(양장)이 일반화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후 부터이며 현대적인 패션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 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문화와 미를 바탕으로 서구의상과 조화 시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호평을 받은 일본의 디자이너로는 하나에 모리(Hanae Mori)와 겐조(Kenzo)이다. 뒤이어 80년대에는 잇세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준코 코시노(Junko Kosin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다. 그 후 일본은 일본 동경(Tokyo) 컬렉션을 무대로 요시키 히무라(Yoshiki Hishinuma) 니콜(Nicole), 토쿠코(Tokuko), 요시유키(Yoshiyuki), 준코 코시노(Junko Konishi) 등 많은 일본 디자이너를 배출 하여 일본은 세계의 주요 패션 정보국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또한 동경(Tokyo) 컬렉션이 세계 패션계에서 세계 3대 컬렉션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이 영향으로 세계 패션의 관심은 일본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동양의 문화에 대한 주목과 관심 역시 높아져 지금까지 서양위주인 국제 패션세계에 동양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극히 일본적인 색과 전통의상인 기모노의 형태의 특징을 이용하거나 전통의 소재를 서구적인 미와 혼합한 독특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세계는 일본적인 것에 근거하며, 일본 전통의 소재나 색은 일본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근거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일본 디자이너의 디자인 아이디어의 기본과 배경이 된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의 기본이자 일본 전통미

인 「와비 (わび)、사비(さび)、이키(いき)、츠(つう)」에 대한 어원과 기원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여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미를 지킨 일본 패션의 세계 패션의 흐름에 미친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일본풍(니폰 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전통적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 미학에 대한 연구 자료,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 잡지 등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참고 문헌과 그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키 슈조(九鬼周造)의 [이키의 構造]를 참고로 하여 이키의 개념과 그의 이끼에 대한 개념을 연구를 하였다.

구키 슈조는 이키가 하나의 미술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적인 사상의 하나로 이론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끼에 있어서 구키 슈조의 이러한 연구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¹⁾

또한 이기는 18세기 후기에 에도의 서민의 생활에서 유래 되었고, 동시기에 나타난 미적이념으로 츠(通)는 보다 지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스와하루오(諏訪春雄)의 [에도인의 미학(江戸っ子の美學)]과 니시야마마쓰지조(西山松之助)의 [에도학입문(江戸學入門)]을 통해 에도의 서민 생활에서 유래된 이끼를 참고로 하였다²⁾⁽³⁾. 현재 일본에서의 에돗코(江戸っ子)는 동경 토박이의 의미이며 즉 도시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이기는 현대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일본을 표현하는 일본적인 미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엔도유키코(遠藤由紀子)、혼마미치코(本間道子)⁴⁾를 참고로 하여 이기는 그 본연의 뜻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것이면서도 현대에 있어서 이기가 전근대와 근대를 지나 즉 에도 시대에서 현재까지 일본의 미적 이념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기는 지극히 즉흥적이며 지적인 분석을 거부하며 때로는 표면적이며 풍속적이며, 해학적이며, 그리고 민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는 일본의 미적이념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을 증명하기 위해 야스다타케시(安田武), 타다미치타로(多田道太郎)의 「이키의 구조를 읽고(いきの構造を読む)」를 참고로 하였으며⁵⁾, 슈오치혼(酒落本)의 「대통법어(大通法語), (1779)」⁶⁾에서는 사비와 와비에 대한 대비적 의미의 해석으로 사비(さび)는 "성스러운 미의식"이며 와비(わび)는 "불완전(不完全)한, 모순(矛盾)의 미의식"이라서 대비적이라는 해석에 대한 면을 참고로 했다.

그밖에 나카오타츠로(中尾達郎)는 "공의지(空意地)"로 높은 학력과 계급과 권력과 경제력 대한 필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면에 대해⁷⁾ 참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또 가가편(芳賀編)의 「거리의 문화백과논집 3 에도의 변화(町人文化百科論集3 江戸のうつりかわり)」를 연구하였다.⁸⁾

또한 우키요에(浮世繪) 대해서 논한 스와하루오(諏訪春雄)의 「에도인의 미학(江戸っ子の美學)」을 참고하였으며, "우키요에(浮世繪)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귀족문화는 반대로 소박하며 간추어진 속에 그 의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는 것은 나가이가후(永井荷風)의 「에도예술론(江戸芸術論)」을 참조하였다.⁹⁾

이키(いき)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니시야마마쓰지조(西山松之助)의 「다시 보는 미인】, 오키야(小木他)의 「에도동경학사전(江戸東京學事典)」¹⁰⁾을 참고로 하였다.

그 외에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일본디자이너의 고찰에는 많은 논문 중 몇몇 논문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명 복식, 의류관련 학회지 및 논문과 패션 전문 잡지를 참조 하였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집과 전문서적, 잡지, 신문, 국내외 논문 등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창작법과 관련 자료 및 개인 배경에 대한 연구 고찰을 하였다.

II. 일본풍과 일본의 전통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일본풍

최근 일본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적인 것(닛폰 필)이라고 하는 것과 일본 전통의 미의 의미로서의 일본미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이른바 왜색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에는 왜색 패션이란 용어가 없다¹¹⁾. "왜색패션이 일본풍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 최근 일본 패션을 지칭하는 하나의 신종의 단어일 뿐 이러한 일본풍이 세계 패션에 영향을 미친 일본 디자이너들의 정신을 대표하고 디자인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는 일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단지 최근 일본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본 패션을 대표하는 신종 단어일 뿐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일본패션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일본인 안에서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기 개성이 뚜렷한 소수 사람들의 패션이다. 그러므로 일본풍(닛폰필)은 일본 스트리트 패션으로서의 일본 감각이 느껴지는 패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만큼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오히려 거리의 분위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일본의 엿쟁이들은 자기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그야말로 개성이 넘치는 헤어스타일과 복장(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복장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인 경우도 많지만)으로 치장하고 다닌다. 즉 자기 입맛대로 걸치고 다니는 개성패션이다.¹²⁾ 일본풍의 형태로는 '겹쳐입기(Layered look)'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기모노가 가진 특징을 응용한 것으로서 얇은 저지로 된 상의와 하체가 달라붙게 입는 레깅스와 풍성한 느낌의 니트 소품 등을 겹쳐 입는 것을 말한다. '믹스 앤드 매치'는 캐주얼과 정장 스타일의 아이템을 함께 착장하여 여성스럽고 세시한 스타일과 스포티한

아이템을 조화 시킨 것으로, 색상과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 등의 조화가 특징이다. 또한 알록달록한 꽃무늬 프린트 쿨터, 빨강, 파랑등 원색의 알이 반짝이는 큼직한 선글래스, 자기 발에서 빠죽 튀어나온 알록달록하고 양상한 운동화, 비참하게 보일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는 나팔바지, 재킷, 축구선수 나카타처럼 빨갛게 물들인 짧은 헤어스타일과 가방을 허리춤에 주렁주렁 매달기도 한 루스 삭스(loose socks), 유난히도 짧은 교복 치마 등의 형태가 있다.¹³⁾

이러한 일본의 개성패션의 정서적인 배경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다와리(ごだわり)라는 단어에 있다. 원래의 의미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과 다른 자신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패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그것이 남과 비교하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라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여 얻어진 자기만의 스타일이므로 타인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주위 사람 역시 색다른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누구나가 각자의 고다와리(ごだわり)가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에 저촉 받고 싶어 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제제를 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단 타인에게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이 행동은 허락된다. 이러한 일본풍의 패션에서는 무엇보다 세계 패션의 트렌드를 보는 시각과 개인의 패션에 대한 창의성과 취향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일본인의 이러한 특성은 같은 패션 지를 보고도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해석, 소화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유행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로 일본풍 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전통미(日本 傳統美)

1) 이키(いき)

일반적으로 일본미라고 하면 "와비, 사비"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 일본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키가 있다. 일본인의 일상생활의 미학

인 이키는 한자로는粹(粹)로 표기하는데 같은 한자를 쓰고도 읽는 것은 스이(粹)로 읽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만 한다. 이키는 명사, 형용동사로서 "기질·태도·옷차림 등이) 때 벗음, 소박한 세련미, 자유로움, 세련됨, 멋있음, 멋들어짐"의 의미가 있다.

19세기의 일본에 대중문화는 우키요에(浮世繪)를 시작으로 근대 서양에 있어서의 예술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건축이 서양에 있어서 우키요에의 초기 콜렉터인 미국의 근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로이드·라이트에게 영향을 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은 일본 문화를 서양적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미적이념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의 미적 이념으로서의 이키는 일본 문화의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 근대 이전의 에도시대에 있어서 일본 대중에게 지지 받았으며 미적 이념 속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키는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현재도 일본인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순수한 일본어로서의 미적이념인 이키는 현재도 일본인의 일본전통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지치고 힘든 삶의 의미를 속에 그 삶을 즐길 줄 알며 진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에 대한 동경의 대상인 에돗코(江戸っ子)로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에돗코(江戸っ子)라고 하는 것은 에도시대의 도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역시 일본에서 동경 토박이의 의미 즉 도시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이키는 일본인 모두에게 일본을 표현하는 일본적인 미로서 에돗코(江戸っ子)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¹⁴⁾

2) 역사적인 문맥의 이키(いき)

이키는 18세기 후기에 에도의 서민의 생활에서 유래 되었다. 동시기에 나타난 미적이념인 츠(通)는 보다 지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스와하루오(諫訪春雄)의 [에도인의 미학(江戸っ子の美學)]에 잘 표현되어 있다.¹⁵⁾

유감스럽게도 에도 시대에 이기는 학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오히려 서양에서는 미적 이념을

지닌 학술적 주제로서 취급된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키는 구키슈조의 [이키의 구조(いきの構造).]에 의해 처음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미학인 아와레(あわれ 가련함), 와비(わび), 사비(さび), 등의 많은 미적 이념은 이키에서 나온 것이다. 곤도유키코(遠藤由紀子)、 혼마미치코(本間道子) 등의 [이키라는 단어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이키는 그 본연의 뜻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것이면서도 현대에 있어서 사어(死語)가 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 속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이것은 이키(いき)가 전근대와 근대를 지나 즉 에도 시대에서 현재까지 일본의 미적 이념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이키의 에도시대의 미학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묻혀있었던 개념에 불과했던 이키를 구키슈조(九鬼周造)가 [이키의 구조(いきの構造).]를 통해 하나의 미술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적인 사상의 하나로 이론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키에 있어서 구키슈조의 이러한 연구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진 중요한 연구이다.

이키는 지극히 즉흥적이며 지적인 분석을 거부하며 때로는 표면적이며 풍속적이며, 해학적이고, 민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다타케시(安田武)는 이키는 일본의 전통적 미적 이념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비(さび)는 “성스러운 미의식”이며, “와비(わび)”는 “불완전(不完全)한, 모순(矛盾)의 미의식”이라서 대비적이라고 해석하였다.¹⁷⁾

에도 사람들은 가난과 무학력인 현실에 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자부심을 가지며, 권력가의 지배세력에 대한 반지배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사무라이의 권위에 도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나카오타츠로(中尾達郎)는 그의 논집 [거리의 문

화 백과론집(町人文化百科論集)]에서 지지자인 에도사람에 대해서 ”장인계급이나 준장인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식을 높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차라리 공의지(空意地)로 높은 학력과 계급과 권력과 경제력 대한 필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¹⁸⁾

또한 우키요에(浮世繪) 대해서 ”우키요에(浮世繪)에는 당당하게 권력자의 박해에도 굽하지는 평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나가이가후(永井荷風)는 생각하며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었다.¹⁹⁾

4) 일상생활의 이키

구키슈조에 의하면 이키는 예술적 경험에 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얻어지는 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다미치타로(多田道太郎) 역시 이런 점에 동의하여 이키는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진 풍속적인 미의식”²⁰⁾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이키는 일상생활을 반영한 일상생활 속의 일본인의 미의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서양의 예술적 개념과는 비교된다. 이키는 형태적(形態的 formal) 이키와 상황적(狀況的 situational) 이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키의 속성으로 대표적인 것은 단순성과 묵시성이 있다.

5) 형태적 이끼와 상황적 이끼

이기는 형태적(形態的 formal) 이키와 상황적(狀況的 situational) 이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키슈조는 사람의 인성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의식현상(意識現象)과 행위, 의견, 복장 등의 객관적 표현으로 구별했다. 구키슈조는 이기는 ”민족적 도구의 형태이며 생활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기는 의식현상으로 객관적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한다.²¹⁾ 형태적 이키는 사물의 형태이며 형태를 표출하며, 상황적 이키는 때와 장소의 형태 전반에 관한 표출이며 행위, 사람의 삶의 방식 즉 심리적인 상황을 말하며 어떠한 장소의 분위기이며 그 상황의 자연현상도 포함된다.²²⁾

일본어에 있어서 이키는 형태적인 의미보다도 상황적인 의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이키의 색(色)으로는(쥐색, 차색,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키의 색채는 화려한 색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색상에 복잡한 틴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기조가 된 색은 쥐색, 다색, 남색 등 아주 침착한 색으로 여기에 화려한 색채를 약간 가미시켜 깊은 맛이 있은 색을 만들었다.²³⁾

이때의 색은 색 그 자체보다는 색의 용도, 즉 그 상황의 사용 목적에 의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상황적 이키는 어떠한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6) 이키의 단순성(單純性)

이키의 단순성(simplicity)은 와비(わび), 사비(さび)의 미적이념과 같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키는 비 일본적 미적이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키에 있어서의 단순성은 기하학적 단순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형태적 이키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구조적 단순성은 상황적 단순성을 말한다.

이키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단순성의 표출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서 미적 만족감을 주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적 경험을 통해 형을 형성했다. 이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만들어진 "세련된 소박미"라고 말할 수 있다.

7) 이키의 묵시성(默示性)

묵시성(implicitness)은 단순성과 같이 이키를 이해하는 하나의 속성이다. 미의 이념은 [나는 예쁘다]라고 자기중심적인 선언을 한다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발언자의 미의 질의 영향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떤 예쁜 사람이 자신이 예쁘다고 한다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키는 자기 주장적(主張的), 명시성(明視性)을 거부한다.

다시 말하면 이키는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묵시적(默示的)으로 알듯 모를 듯, 아무런 표현하지 않는, 침묵하는 즉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침묵하여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렇기에 아무 표현이나 주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키의 묵시성(默示性)이라고 한다. 이것을 니시야마마츠지조(西山松之助)는 "다시 뒤돌아보는 미인"이라고 표현했다.²⁴⁾

이키의 묵시성은 우키요에(浮世繪) 속의 여성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서양의 자화상과는 상반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의 자화상 중 모나리자를 보면 보는 관객을 직시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속의 모나리자의 시선은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 속의 여성상은 결코 보는 사람 즉 관객의 시선을 직시하지 않는다. 항상 다소 곤이 보며 보는 사람(관객)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또한 어떤 우키요에(浮世繪) 속의 여성이 입고 있는 기모노의 모습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다소 곤한 여성의 모습이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신체의 한부분인 허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오비(帶)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오비(帶) 자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신체적인 이키의 표현으로는 만약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면 등을 마주하는 모습이나 반대 방향을 보며 앉아 있는 모습 즉 위에서 보면 S자형을 말한다. 남과 시선을 마주 대하지 않는 위치를 말한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일본적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히카에매(控え目), 히카에루(控える), 히카에매노온나(控え目の女)라는 단어로 여성스러운 여성 즉 나서지 않고 한걸음 뒤에서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는 애매한 표현이 많다. 확실히 (No 아니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다. 직선적인 표현이 서투른 일본인이긴 하지만 결코 (No)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며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표현을 (No)라고 하지 안을 뿐 (글쎄요) 라거나, (좀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라고 표현한다. 그 의미는 (No)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8) 근대 일본 복식의 이끼와 츠(通)의 연관성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이기는 일본 에도시대의 양반계급(사무라이)과는 반대의 서민적인 미적 감각이다. 서민적인 미적 감각이지만 경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츠(通)은 의복에 있어서는 남성의 복식 형태 속에 여성 복식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야다는 “츠는 유희와 연애감정을 형상화, 구체화한 것으로 타인으로서는 본인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의 느낌으로 지극히 감각적인 의식이다”라고 하였다.²⁵⁾

남성의 이러한 여성스러운 복식 풍을 풍자한 슈오치혼(酒落本)의 [풍속팔색담(風俗八色談)]을 보면 지금까지의 강한 남성복식이 아닌 여성스러운 속옷을 착용하고 홍색의 상의의 소매단과 넓은 오비(帶)를 허리춤에 매고 유행어를 사용하며 헤어스타일이나 얼굴은 유행을 따른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말하자면 츠(通)는 상대의 여성과 공유하는 의복을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옷에서 함께한 것이다. 당시 겉옷의 색은 검은색이나 청, 회, 자색 등 화려하지 않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였으나 속옷에는 여성의 전유물인 것과 같은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상대 여성과 감정을 공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후지모토 키야마(藤本箕山)의 [색도대감(色道大鑑)]²⁶⁾을 보면 일본 근세중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기 역시 부분적이지만 흡사한 형태가 존재했었다. 사랑하는 여성과 화려한 속옷을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역시 함께 소지하여 서로의 애정확인과 유희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복식의 심리는 상호 세계를 형상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의복을 통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복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렇듯 복식과 장식품을 통한 서로의 감정의 공유를 통해 이어진 미적 세계는 이끼로 확대되어 갔다. 앞에서 남성의 복식 속에 여성의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했으나 근세 중기에서 후기에는 여성의 복식에 남성적인 경향이 나타나던 시기 이였다. 예를 들면 여성의 하오리(羽織)를 들 수가 있다. 남자의 하오리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장

식품이나 가방 등을 하오리로 염색하기도 하여서 이것을 범으로 금하기도 하였다. 연정오(延亭五, 1748)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들의 남성복의 하오리의 착용은 주로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이였으며 그녀들은 남성의 상징이기도 했던 하오리를 착용함으로서 남성이 된 듯한 기분을 즐겼다고 한다. 그녀들 사이의 독특한 복식의 형태는 이윽고 근대 중기 이후에는 에도의 서민 의복의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복식 형태가 되었으며 남성복의 여성복식의 요소가 가미된 형태나 여성복이 남성복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이끼의 미적 감각으로 발전되었다.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學大系)]에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호감을 가지게 하는 머리 형태이다.”이라고 서술된 “남녀호(男女好)”는 이끼의 성립과 그 의미를 시사한다.²⁸⁾ 당시 남자의 하오리를 입은 여성은 보고 활발하고 앞서가는 여자이지만 경박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여성스러움을 감추고 단아함과 고풍스러움과 세련미를 함께 갖춘 이끼의 멋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멋을 즐기는 에도인의 문화와 정서는 에도 후기의 우기요에(浮世繪)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에도의 남녀 모두 서로의 심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의식을 형성하였다.

9) 와비(わび), 사비(さび)

와비와 사비 중 와비는 결코 화려한 미와는 정반대되는 미로서 물질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의 의미인 “와비”는 동사로서 와부(わぶ)로 “차분해 지다. 조금은 괴로움, 낙타하다, 영락하다” 등의 뜻이며, “오래되다, 색이 바라다” 등의 의미도 있다.

“와비”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생각하는 데로 되지 않은 괴로움이 있는 외로움 보다. 더욱 유통하고 가슴이 시리고 심한 외로움에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한 외로움 보다 더한 감정”을 말한다. 와비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으며 조형적으로는 “완성 전단계”, “완성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되지 않는 미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의 무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움 즉, 무의식의 미의 의미인 와비이다.

"사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생명력이 퇴진 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감정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비는 오래된 정취가 있는 상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건의 원숙미와 완성미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사비는 물건 속에서 나타나는 정숙미 그리고 기품과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자체의 특이한 미를 발산하며 그것을 음미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는 소박하며 정이 깃든 듯 한 형태를 말한다. 오랜 세월 속에서 역사의 풍파를 견디어낸 사찰이나 가옥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 토코노마(床の間)에 놓인 양상한 마른 나무가지, 또는 녹슨 생활용품이나 가구 등이 사비에 해당된다. 사비는 젠 미학의 일부이며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 속에서 나오는 기품이나 창연한 고색을 띠는 것으로 일본의 다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사비는 일본 다도의 오차노유(茶の湯:오차의 따뜻한 물) 그리고 찻잔 등의 차에 쓰이는 도구의 미의식, 정신성을 나타내는 말로 화려하고 부유한 미의 반대말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어두운 감정을 나타내는 반대의 평가로 "미를 표현하는 용어"로서의 사비는, 오차의 세계나 비구 등에서는 문예의 세계를 통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인의 독자적인 미의식이나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한다.

와비와 사비는 적적함, 호젓함, 외로움을 말한다. 실의에 빠져 기력을 소진한 궁핍함의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상황을 극복하여 마음의 충족과 평온을 얻으려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여유로움과 풍유를 즐기는 미의식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미는 물질적인 여유를 즐기기 보다는 정신 세계를 즐기는 멋을 말한다. 이러한 미는 일본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슬픔과 애환을 달래고 정신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와비", "사비"라고 하는 단어가 미를 느끼게 하

는 단어로 변화되어진 것의 배경에는 와가문학(和歌文學)의 전통이 있다.

와가문학(和歌文學)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때부터 배구(俳句), 연가(連歌)에 의해 전개되어 에도시대(江戶時代)에 유행하였다. 전통 와카(和歌)의 고급스럽고 우아함과 하이카이(徘徊)에서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면을 조화하여 쇼후 하이카이를 만들었다.

한속(閑寂)의 의미로는 한적하고 청정(淸澄: 맑고 깨끗함)함을 의미하며 뭔가 조금은 외로운 경지 또는 색채감을 부정하는 것이나 멋과 정취를 미의식으로 발전시킨 일본문화의 독창적인 것이다.

III. 현대 일본 패션 디자이너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

1.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1964년에 파리에서 freelancer로 염색기술을 습득하여 일본의 목욕가운인 유카타의 요소를 응용한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은 유카타의 평면 구성 요소를 재현하였으며 소재는 면을 사용하여 특유의 모던한 감각의 염색을 응용한 작품으로 미국에서 신선한 호응을 얻었다.

다카다 겐조는 면(cotton)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남태평양 일대의 밝은 자연과 꽃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염색은 세계패션계에 동양의 이미지를 소개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하위 문화계층을 대변하는 패션이 80년대 이후 파리 패션의 주류를 이루는데 교량 역할을 하였으며 서구 패션계에 orientalism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이러한 그의 디자인 의식의 저변에는 에도의 서민의 귀족문화에 대응하는 당당함과 도도함의 표현인 이끼의 에도 미학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색에 대한 감각과 표현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귀족풍의 우아한 파리 패션에 동양의 이미지와 제3의 문화권의 민속의상의 이미지를 조화시켰다. 또한, 파리의 이미지를 캐주얼화 시키는 디자인의 이미지 전개를 과감히 전개함으로서 파리의 의

상을 거리로 전개시킨 다카다 켄조의 작품세계를 통해 동양문화, 일본문화와 예술, 의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잇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미야케의 작품세계는 일본 전통의 기술과 형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에서 얻어진 디자인 아이디어를 글로벌한 가치관과 미의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패션은 본질을 향한 귀화에 대한 열망, 자연스런 인간 상태 그대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그의 창조력은 도쿄를 세계 패션 중심지로 부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어서 등장하는 레이 카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의 일본 디자이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밀거름이 되었다.

그는 세계적인 패션쇼인 파리의 프레타 포르테에서 '한 장의 천(一枚の布, A Piece of Cloth)이란 주제로 컬렉션에 발표한 그의 작품은 몸과 의복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잇세이 미야케의 디자인 창작의 원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클래식하고 엘레강스 한 분위기이기만 했던 파리 패션계에 일본 전통의 상 기모노로부터 영감을 얻은 봉제나 재단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인 의상을 무대에 올림으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잇세이 미야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디자인 중의 하나는 1989년 처음 선보인 'Pleats'라고 할 수 있다.

1993년에 'Pleats Please'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라인을 전개하여 미야케 플리츠는 공간과의 여행 그리고 일상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이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단순한 문양에 대한 새로운 기분의 상징의 표출이라는 점²⁹⁾과 복식 디자인은 살아있는 신체의 주인공인 인간에 의해서 성립되며 인간의 신체를 무시한 복식의장은 복식의 장의 영역을 벗어난다는³⁰⁾ 요소를 가미하여 인간의 신체를 자유롭게 디자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레이 카와 쿠보는 검은색의 소재를 좋아하며 장식을 기피하였다.

전통 일본 미학의 중요한 요소인 와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은 그녀의 패션 철학인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와비는 조형 상으로는 "완성 전 단계" "완성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 된지 않는 미를 의미하며 불완전(imperfection)은 또 다른 미의 대상이며 이것은 자연에 대한 허무한 감정 그리고 정형화된 상태, 규격화되고 짜임새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는 무력함과 도전의식 등을 의미한다. 불완전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이탈에 대한 감정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아이디어 감각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녀의 디자인 세계이다.

그녀의 조금은 괴이하면서도 흐트러진 듯한, 마치 미완성인 듯한 style의 작품은 적지 않은 충격을 패션계에 주었다.

이러한 작품을 탄생시킨 그녀의 미의 세계는 관습, 전통, 고정관념을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파괴함으로서 새로운 미(美) 창조에 대한 노력을 한 점에서 그녀의 작품은 일본의 전통미의 미적인 요소인 와비적 성향과 이키의 서민문화의 형성의 성향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결론

이기는 18세기 후기에 에도의 서민의 생활에서 유래된 것으로 귀족계급에 대응하는 서민적인 미학이었다. 또한 에도시대의 화류계, 가부키(歌舞伎)와 관련을 갖고 이들의 세계에서 나타났다. 당시 화류계는 시민들의 문화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가(武家), 명사들이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 세계에서는 대부들에게 요구된 여러 가지 향(香), 화(花), 다도(茶道)와 같은 고전적인 교양도 새로운 예능과 함께 하나의 미적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

다.³¹⁾ 동시기에 나타난 미적이념인 츠는 보다 지적 인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스와의 [에도인의 미학(江戸っ子の美學)에 잘 나타나 있다.³²⁾ 여기서 에도 코(江戸っ子) 라고 하는 것은 에도시대의 도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역시 일본에서 동경 토박이의 의미 즉 도시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이키와 츠는 일본인 모두에게 일본을 표현하는 일본적인 미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미적 이념으로의 이키와 츠는 일본 문화의 모더니즘의 전체적인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인의 삶 즉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일본 전통의 정취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미학인 아와레(あわれ 가련함), 와비, 사비, 등의 많은 미적 이념은 이키와 츠를 통해 공존하는 것이다. 구키슈조가 [이키의 구조(いきの 構造)]를 통해 이키를 하나의 미술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적인 사상의 하나로 이론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기는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묵시적으로 알듯 모를 듯, 아무런 표현하지 않는, 침묵하는 즉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침묵하여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기에 아무 표현이나 주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키의 묵시성이라고 한다. 일본 미학, 예술적 이념은 꾸미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의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미는 이키에서 말하는 일상의 현상이다.

와비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이며, 조형 상으로는 "완성하기 전 단계", "완성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는 미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의 무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움" 즉 무의식의 미의 의미가 와비이다.

사비는 오래된 정취가 있는 상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건의 원숙미와 완성미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물건 속에서 나타나는 정숙미(靜淑美) 그리고 기품과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자체의 특이한 미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사비는 젠 미학의 일부이며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 속에서 나오는 기품이나 창연한 고색을 띠는

것으로 일본의 다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리므로 일본의 미는 일본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슬픔과 애환을 달래고 정신을 승화 시키고자 하는 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많은 이키에 대한 논증을 제시한 구키슈조 역시 이키에 관해 전부를 파악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며 대중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미적이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철학적인 조작이 과한 부분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 논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이상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는 일본 디자이너의 디자인 아이디어의 기본이 되었다. 일본 디자이너의 문화와 디자인의 배경이 된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의 기본이자 중심인 "와비、사비、이키、츠"에 대한 어원과 기원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고찰을 통해 현재 동양권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패션의 근원적 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일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전통과 미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세계 속의 디자인을 완성한 것으로 사려 된다.

참고문헌

- 九鬼周造 (1981). いきの構造. 九鬼周造全集 岩波書店, pp. 54~55.
- 諫訪春雄 (1980). 江戸っ子の美學. 日本書籍, pp. 56~57.
- 西山松之助 (1981). 江戸學入門. 築摩書房, p. 200.
- 遠藤由紀子, 本間道子 (1963). 心理學的に見たいきの構造. 至文堂, 現代のエスプリ14いき・いなせ・間, p. 194.
- 安田武, 多田道太郎 (1979). いきの構造を讀む. 朝日新聞社, p. 19.
- 洒落本 (1779). 大通法語.
- 中尾達郎 (1984). すい・つう・いき-江戸の美意識攷-. 三弥井書店, p. 23.
- 芳賀編 (1981). 町人文化百科論集3江戸のうつりかわり. 柏書房, pp. 228~237.
- 永井荷風 (1948). 江戸芸術論, 永井荷風論集 第十一卷 中央公論, pp. 187~188.
- 小木新造 他 (1987). 江戸東京學事典, 三省堂, p. 427.
- 이연 (1999). 일본대중문화베끼기. 나무와 숲, p. 13.
- 이연. 앞의 책, p. 14.
- 이연. 위의 책, p. 16.
- 諫訪春雄. 앞의 책, pp. 55~57.

- 15) 諏訪春雄. 위의 책, pp. 57~59.
- 16) 遠藤由紀子. 本間道子. 앞의 책, p. 195
- 17) 安田武. 多田道太郎. 앞의 책, p. 20.
- 18) 中尾達郎. 앞의 책, p. 24.
- 19) 永井荷風. 앞의 책, p. 189.
- 20) 安田武. 多田道太郎. 앞의 책, p. 21.
- 21) 九鬼周造. 앞의 책, p. 14.
- 22) 小木新造 他. 앞의 책, pp. 16~18.
- 23) 조규화 (2004). 복식미학. 수학사, p. 359.
- 24) 藤本箕山 (1974). 色道大鑑. 八木書店, p. 32.
- 25) 藤本箕山. 앞의 책, p. 38.
- 26) 小池三枝 (2002). 服飾의 表情. 劲草書店, p. 145.
- 27) 小池三枝. 앞의 책, p. 146.
- 28) 谷田閔次 (1959). いきとその周辺. 美學, 37号, 美術出版社. p. 264.
- 29) 조규화 (2004). 패션미학. 수학사, p. 568.
- 30) 조규화. 앞의 책, p. 24.
- 31) 조규화. 앞의 책, p. 569.
- 32) 諏訪春雄. 앞의 책, p. 56.